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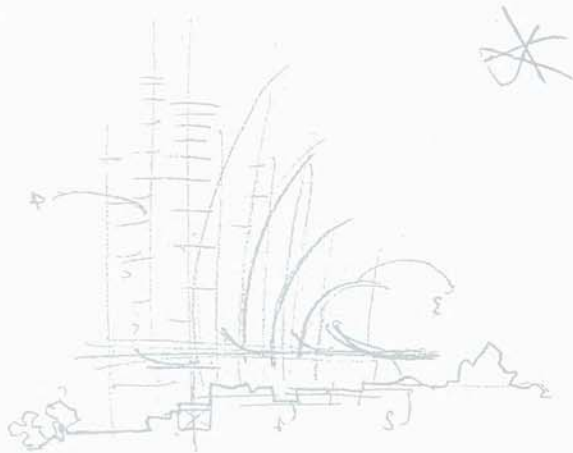


낮설음이 전하는 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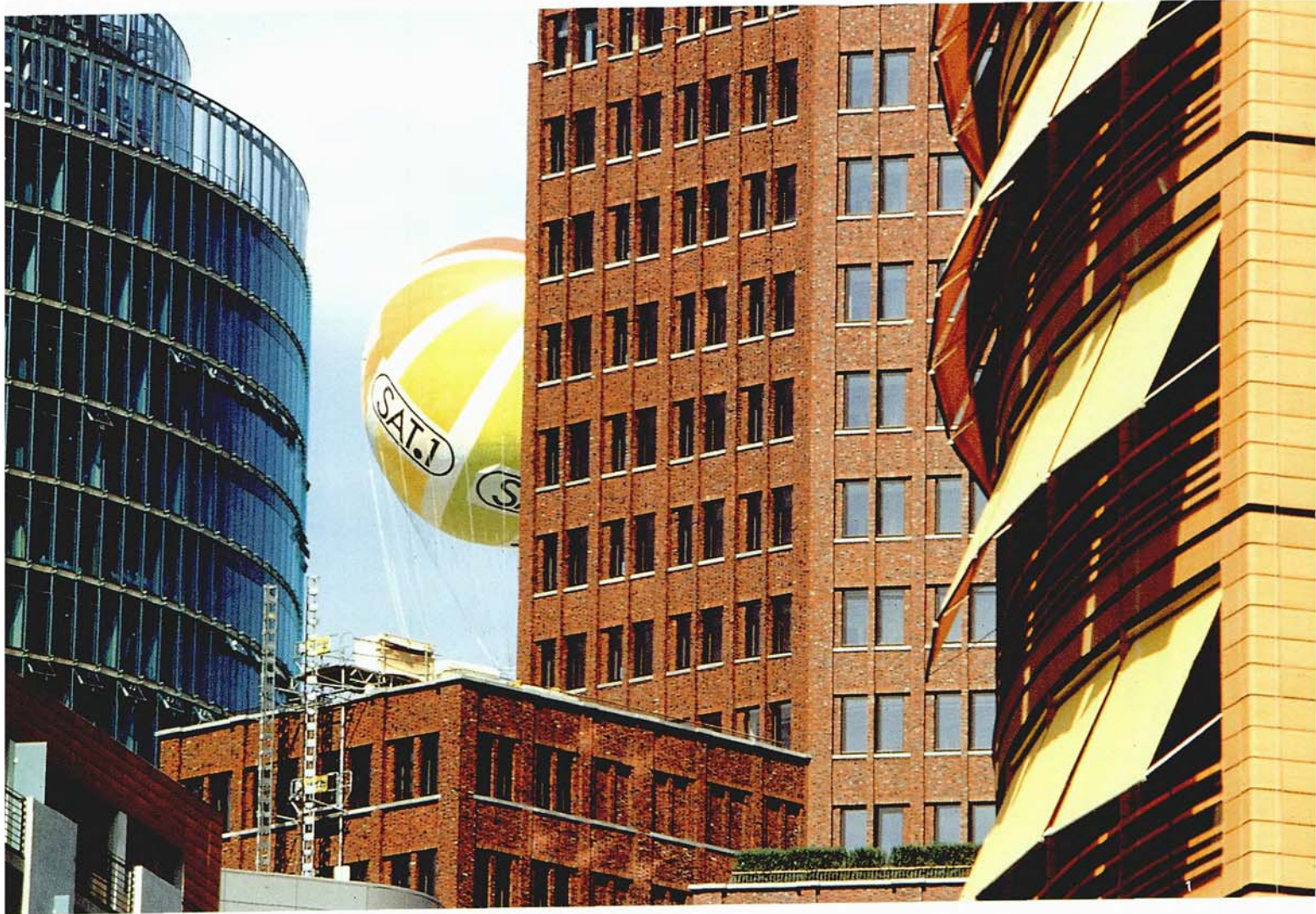
Renzo Piano

파리에서도 포부르 지구는 최신 유행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 거리를 걷다 보면 유난히 낮설고 이질감이 느껴지는 모양의 풍피두센터를 만날 수 있다.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 미술관과 더불어 예술과 문화 도시 파리의 대표적 명물로 자리매김한 풍피두센터를 탄생시킨 주인공 렌조 피아노를 만나보자.

에디터 이금희 번역 우영선 자료 제공 마로니에 북스(www.maroniebooks.com)



피아노와 로저스, 풍피두센터, 1971~1977년. 피아노가 선택한 형태에서는 산텔리아의 환상적인 드로잉과 런던의 건축가와 디자이너 집단인 아키텍(1960년)이 발전시킨 '초기 미래파' 양식이 암시되어 있다.



• 전 세계의 유명한 건축물을 소개하고 있는 출판물 <언더스탠딩 아키텍처(Understanding Architecture)>. 1부에서는 공간의 개념, 비례에 대한 연구, 영토계획, 도시계획, 건물 타입과 스타일 등으로 유명한 건축물들을 분석하고, 2부에서는 당대에 유명했던 건축가들과 그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이미 미국과 이탈리아를 비롯한 그 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출간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아직도 렌조 피아노라는 인물은 그를 국제 무대의 중심에 올려놓은 어떤 작품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그 작품은 바로 파리의龐피두센터(Georges Pompidou Center <1972-1978>)이다. 한 건축가와 작품이 이처럼 오랫동안 서로 일치될 수 있는 이유는 널리 알려진 대로 이 센터가 건설 현황이 최종 건물에서 어느 정도까지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지를 둘러싼 일반적인 예상들을 뛰어넘은 최초의 건물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때까지만 해도 가장 혁신적인 설계에서도 비록 일부러 감추지는 않겠지만 건물의 구조적 '비밀들'을 시각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환기 덕트, 공기정화 설비, 엘리베이터, 계단 등이 세심하게 드러나거나 감추어짐으로써 볼륨의 명료함과 미학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이 한껏 펼쳐지는 시각적 장을 만들어냈다. 아무리 매력적이며 호감 있는 건물이라도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龐피두센터는 마치 구멍이 뚫려 있는 위 같다.

이 건물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마치 전신 엑스레이 촬영을 한 유기체를 관찰하고 있는 듯하다. 혁명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이 건물이 하이테크라는 이름으로 현대 건축에 등장한 사조



2



3

의 시작을 알렸다는 점과, 가장 발전된 기술들을 이용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포부르의 건물은 특이함과 화려한 기교를 불필요하게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 유연성을 위해 주어진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디자인된 것이다. 이 건물은 8000평방 피트로 구조적 장애물에서 완전히 자유로워 '문화적 기계'라는 명칭을 붙이기에 적합한 거대한 용기와도 같다. 이 모든 요소들은 건물(200×560)의 경계 주변으로 이동되었고, 강철과 주철로 된 골조는 160피트에 달하는 내부 공간을 가로지르고 있다. 따라서 풍피두센터는 '다목적 건물'이라는 명칭을 얻기에 충분하다. 미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건물은 건물과 주변 환경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라는 이슈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대표적으로 표현해내며, 히테로피아로 발전하게 될 사조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1 렌조 피아노 외 복원된 포츠담 광장, 1992~2000년, 베를린.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진 이후 다임러 벤츠사가 추진한 이 복원 계획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황폐화되고 장벽이 세워진 후 파괴되어 버린 지역을 멋지게 변모시켰다. 렌조 피아노 건축사무소에서 내놓은 마스터플랜에 따라 이소자키, 로저스, 콜호프, 모네오 등의 유명한 건축가들이 같이 작업에 참여했다. 이 계획에는 사무실과 아파트, 아이맥스 영화관으로 사용될 19채의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 2 렌조 피아노와 피터 라이스, 메닐 컬렉션 빌딩(Menil Collection Building), 1981~1986년, 텍사스 휴스턴. 3 렌조 피아노와 피터 라이스, 티바우(Tjibaou) 문화센터, 1991~1998년, 뉴칼레도니아 누메아(Noumea).

Life & Works

1937년 제노바에서 태어난 렌조 피아노는 플로렌스 대학교 밀라노 공과 대학에서 공부했으며, 1964년에 건축 학위를 취득했다. 졸업하자마자 국제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한 그는 필라델피아의 루이스 칸 사무실에서 일했고, 이후에는 런던에서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gers)와 같이 일하며 풍피두센터를 설계했다. 그는 1977년 피터 라이스(Peter Rice)와 같이 일하기 시작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이 공학자와 피아노는 1993년까지 함께 일했다. 1981년 그는 파리와 제노바에 렌조 피아노 건축사무소(Renzo Piano Building Workshop)를 설립하여 전 세계에 걸친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갔다. 피아노의 예술적 안목은 도시 계획이나 극장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을 통해 표현됐으며, 다재다능한 건축가로서의 면모는 휴스턴의 메닐 컬렉션 빌딩(Menil Collection Building)과 같은 작품을 통해 잘 드러나 있다.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이 건물은 '반-보부르'적인 건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자연광이 비치는 이 건물은 기술을 과시하는 양상과는 거리가 멀다. 피아노는 하이테크적인 표현 형태들도 자주 사용했으며, 그 일례로 뉴칼레도니아(New Caledonia)의 누메아 문화센터(Noumea Cultural Center)를 들 수 있다. 이 건물은 목재와 전통적인 재료들을 사용, 놀라울 정도로 획기적인 형태들이 만들어졌다. 또한 렌조 피아노는 이와 같은 자유로운 창의성을 발휘해 암스테르담의 과학 기술 박물관(Museum of Science and Technology)을 설계했다. 이 건물은 항구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미지의 세계로 이제 막 항해를 떠나려는 배처럼 생겼다. 또한 여러 건축가들과 합심한 피아노는 베를린 장벽이 서 있던 곳에 포츠담 광장(Potsdamer Platz) 복원 작업을 추진해 나가기도 했다. ☺